

리허빌리테이션에서 본 위안부들의 그후와 현재

야수하라 게이고 (安原桂子)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인 린다·자베스는 연구계획서에서, 현대의 조직적 강간으로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현상, 과거의 것으로서는 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의 후유증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양적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입수되는 자료속에서 한국, 북조선, 대만, 필리핀의 희생자가 어떻게 그 아픔을 끌고 살아왔는가, 또 어떤 리허빌리테이션이 그녀들과 같은 불행을 두번 다시 되풀이 안하도록 할 수 있고, 혹은 피해자를 최소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자고 합니다. 그녀들의 그후의 인생을 봅시다.

1. 결혼

한국: 27명중 10명이 결혼. 다만 7명은 후처. 또 9명이 동서(同棲) 혹은 첩이 되어 가정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남은 7명은 평생 독신으로 지낸다. 또 애기를 낳은 여성은 27명중 7명만이다 2),4),5),11).

북조선: 공개증언자 33명의 대다수는 자신의 경험을 수치로 여기고 처음부터 단념하여 결혼안했다. 가령 결혼했다하여도 기혼남성의 후처로 된 예가 많다. 초혼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6명에 지나지 않다. 독신자나 불임의 사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 3) .

대만: 이름을 밝힌 56명중, 이혼과 두번이상의 결혼을 경험한 사람 12명. 결혼한 사람 28명. 동서하고 있는 사람 11명. 아이를 가진 사람은 56명중 15명. 독신으로 지낸 사람 5명 1) .

필리핀: 26명의 전 「위안부」의 증언에 의하면 거의 모두가 결혼하여 아이가 있다. 독신으로 지냈다고 증언한 사람은 2명뿐이다. 애기를 낳지 못한 여성은 5명 4),11),12) .

불임율/한국 (74%), 대만 (73%), 필리핀 (19%)

독신율/한국 (26%), 대만 (9%), 필리핀 (7%)

2. 현재의 생활환경

한국: 20명이 혼자 살고, 경제적으로도 건강면에서도 매우 곤란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2),4),5),10),11) .

북조선: 결혼해도 애기를 낳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전처의 아이나 양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다 3) . 독신자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대만: 아이가 있어도 그들을 피하고 거의 모두가 할 수 없이 고독하게 혼자 살고 있으며, 아이나 손자집에 동거하면서도 마음을 펴지 못한채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 처참하고 고독한 만년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곤란하다 1) .

필리핀: 두명을 제외한 거의 전원이 손자의 세대를 포함한 가족들속에서, 혹은 친척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11),12).

3. 기왕의 병력

한국: 자궁병, 방광염, 얻어맞은 탓으로 비가 오면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며, 자궁적출, 불임, 담석, 불면증, 신경성심장병, 울병(鬱病), 두통, 트러머(Trauma), 매독, 매독성정신병(모자 이대에 이름), 고혈압, 지방간, 십이지장궤양, 관절염, 오른쪽 옆구리에 물이 생기는 혹, 말라리아 재발, 빈혈, 시력저하 2),11),4),5) .

북조선: 34명중 13명이 30부터 40대에 자궁적출수술을 하고 있다. 18명이 심한 태하증상, 22명이 심장신경증, 3명이 언어장애와 청각장애, 26명이 무엇인가 상처 자국을 가진다. 기타, 가슴이 쓰린다, 심장 발작증, 고혈압, 신경통등 병을 앓아진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전원, 같은 연령의 여성보다 건강상태가 나쁘다. 빠른 시기부터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55살의 정년이전에 퇴직한 여성은 34명중 27명이다3)-P17.

대만: 불임, 자궁질환, 위병, 요통, 어깨가 빠근하다, 두통, 신경통, 허약체질. 20~30년간 병으로부터 해방이 안되어 돈은 다 의료비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람이 2명. 말라리아가 재발하여 그 고통에 견딜수가 없다는 사람이 1명. 나이가 갈수록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중풍, 통풍, 기관지천식, 폐기종, 폐부질환등이 늘어나고 있다 1) .

필리핀: 자궁병, 허리밑의 동통, 등의 동통(고문의 흔적), 불임, 자궁적출, 임질, 유산체질, 신경성심장병, 몸의 마디마디가 아프다, 팔의 골절, 울병, 사람 피기, 트러머, 언어장애. 필리핀여성이 성노예로서 감금된 기간은 몇일부터 수주로서 조선인「위안부」에 비하면 짧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는 남아 있는 것이다 11),12).

* 트러머 (Trauma)

自我가 수용못하고, 억압함으로써 기억의 밖에 배출해버리자는 체험이, 여러 가지의 외적위기상황이나 내적긴장상태가 심해졌을 때, 정신병리현상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희생자들의 심리적상황

(1) 전「위안부」였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자기를 겸비한다.

어느 나라의 여성도 이 저주러운 경험을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치로 여기고 결혼을 안한다는 것은 한국·북조선에서 현저합니다. 인간기피, 사회에서의 고립, 고향을 떠난다는 반응은 한국, 북조선, 대만, 필리핀의 각국에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 여성도 가족을 포함해서 남에게는 평생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결혼할때 남편에게만은 털어놓았다는 여성이 몇이 있습니다.

수치라는 경험이 문화가 다른 여성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친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의식의 영향은 사회에서의 고립이나 인간기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사회의 한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수치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기성의 가치관을 의심하거나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로부터 여성들이 필사적으로 되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자고 발버둥치고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기를 낳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하는 한국의 여성이 눈에 띄게 많은 것도 이해됩니다. 전통적인 유교세계에서는 여성은 결혼하고 에기를 낳아야 처음으로 사회의 한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고립될까 걱정하는 바람에 가령 틀려도, 적절하지 안했다해도 온갖 수단으로 남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힘쓴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녀들의 결혼, 동성, 첩생활, 그리고 그 대부분이 실패한 의미가 뚜렷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과 인관관계를 맺고 싶다는 큰 충동에 이끌려 행동한 모습은 마치 따돌림을 받은 어린 소녀가 놀이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2) 남성과 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다.

한국과 북조선의 여성은 너무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일하다가 남자가 실어서 그만두었다는 등의 증언은 수건 있습니다. 필리핀의 여성 두명은 그것이 원인으로 독신주의를 지켜왔다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결혼해도 성폭력의 공포의 기억으로 남편과의 성생활이 참을 수 없었다거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등의 증언이 말레이지아에서도 나와있습니다.

(3) 살아갈 목적, 기력을 잃다.

이 경향은 특히 한국, 대만에 현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최저의 빈곤에 허덕이면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녀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술

이나 담배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다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4) 모든 것이 팔자라고 단념하고 쉽게 자기에 불리한 상황에 빠지다.

바람에 날린 나무잎처럼 철저하게 비력한 자신을 한탄하여, 남이 하는대로 이용당하거나 혹은 헛된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은 오랜 기간 구속당하고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었던 시대에 뿌리박혀진 행동 바탕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여성에 많을 것 같습니다만 북조선이나 필리핀에는 그런 발언은 볼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체제의 북조선에서는 운명이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덜 느끼는 탓인지 혹은 청취자가 거기까지 깊이 파고들고 듣지 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자신의 운명이라 하기보다 가족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풀리지 않는 가슴의 상처 (트러머, 애기를 낳지 못한 한, 복수원망, 울병)

예컨대 「텔레비를 보아도 전투장면은 보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인 전 「위안부」의 말이고 필리핀여성에서도 같은 발언이 나와있습니다. 또 「옛날의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2)」는 발언은 각국의 수명의 여성들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울병이 된다, 잠을 못잔다, 등도 각국의 여성에 공통되고 있습니다. 북조선과 대만에서는 이루지 못한 원한, 결착이 얹내려지는 원한에 대한 말로 넘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조선에서는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경과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때의 몸부림치는 만행을 한놈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 3)」. 대만에서도 과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고」 「반드시 결착을 내리고 마음을 펴고 싶다」 아니면 「죽어도 죽지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6) 경험을 어느 정도 극복한 소수의 사람들

극히 소수이지만 자손심과 행복을 찾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남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남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고, 곤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 죽고 싶다 2)」거나 「33살때 내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4)」. 또 대만에서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위안부가 된것이 아니다. 도덕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다. 부자는 비웃는지도 모르지만 빈곤한 사람은 알아준다 1)」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위안부」로 된 시기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고손자녀를가진 인생의 그저 한 토막에 지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5. 이와 같은 사실을 리허빌리테이션의 가능성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명백히 됩니다.

(1) 모성기능의 손상은 매우 빠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필리핀의 3명의 여성은 3일간부터 2주일간, 길어서 3개월의 성폭력의 결과로서 애기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감금을 동반하는 성폭력에서의 조기구출, 조기치료의 필요성은 명백합니다. 3개월동안 군「위안부」로 감금된 네덜란드의 여성은 부인과의 수술을 받고 겨우 애기를 낳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때문에 모성기능의 수복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2) 해방후의 생활에 있어서 좀처럼 낱아지지 않는 성병이 수치의 의식을 증대하고 결혼기피의 이유로 될수 있다. 「10년 걸쳐서 성병을 고쳤습니다 [한국]」. 강간희생자의 성병치료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3) 열등감뿐만 아니라 극단한 남성불신이 결혼기피의 원인의 하나로 될수 있다. 남성측의 이해와 원조의 필요성.

(4) 성병, 말라리아를 포함한 끈임없는 병의 치료비가 가난의 원인의 하나로 될수 있다. 특별한 의료보상제도의 필요성 (참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일본군포로에 대한 특별한 건강보장제도).

(5) 무학이며 손에 기술이 없는 것도 열등감, 인간기피증, 또 항시적인 빈곤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녀들의 직업력을 보며는 그것은 명백할 것이다. 대만에서는 「소제, 세탁, 밥짓기, 웨이트레스」, 한국에서는 「술집, 식당, 주방일, 가정부」라고 양나라에 큰 차이는 없다. 사회복지를 향하여 갱생프로그램이 필요함 (6) 운명주의에 이르는 정신적무력감은 감금기간이 오래된 사람에 많다. 1년이상 최고 8년에 이르러 감금된 한국, 대만의 여성에 많다.

(7) 감금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트러머는 수십년후에 발증한다. 감금기간이 수주일부터 수개월의 필리핀여성이 몇사람 트러머를 발증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강간이 범죄이고 재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런 육체적 상처, 마음의 상처는 복잡하게 서러 영향을 미치면서 피해자들을 고독과 빈곤의 사이클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의 이해가 있다면 그녀들의 고통은 많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8) 필리핀에서는 희생자들이 그 대학살속에서 살아난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주위가 받아들여주고 남편되는 남성이 모든 것을 털어놓은 여성에게 「당신의 책임이 아니요」라고 용기를 북돋아 준 경우도 적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남존여비의 문화가 희생자를 철저하게 사회에서 고립시켰다.

(9) 정신적 카운슬링의 필요성.

여성의 신체는 신전(神殿)이지 애기를 낳기 위하여 2~3살부터 그렇게 준비되어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P113. 그 신성한 신전에 억지로 들어

가서 더럽히고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서는 애기를 낳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해 버린 강간, 이것이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제도입니다. 여성이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권, 인류에로의 유대, 그것을 여성으로서 성숙하기 이전에 단절당한 소녀들, 이 마음과 몸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정신과 몸이 약해짐에 따라 옛날의 가슴의 상처가 의식의 표면에 나와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군대위안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듣습니다. 젊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한 탓으로 인간답게 취급받았던 그녀들은 죽어도 마땅한 소속장소를 가질 수 없는 절망의 구렁속에 빠지는 것으로 됩니다.

그녀들의 육체적인 손상에 대한 의료수당도 그녀들의 사회복기를 도와주는 교육적인 노력도 수치감의 극복을 위한 정신적서포트도 일체 없이 50년이 지나가, 너무나도 무참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여성들도 국민도 정부도 그녀들의 경제적인 곤궁에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고 약간이지만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생각은 없지만 다음에는 아마 병약한 그녀들에 대한 의료원조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위 받침도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비참하고 괴로웠던 그녀들의 인생이 다 수치의 의식이란 큰 부담과의 투쟁이었던 것을 이해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그녀들을 유린한 남자들이 죄인으로 처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해서 처음으로 자신이 범죄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고립무연속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워왔다고 납득하여 자부심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민족의 딸로서 용기있는 투쟁을 끝낸 자기들이 꼭 죽은 후의 세계에서는 따뜻이 맞아줄 것이라고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여생을 지내주시기를 절망합니다.

부 록

〈한국정대협의 생활지원활동〉

(1) 국민모금

1992년 11월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모금국민운동본부」을 발족하였다. 이 운동으로 한국의 내외에서 모인 기금을 62명의 할머니에 250만원씩 분배했다.

(2) 한국정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한국정부는 1993년 5월, 강제「종군위안부」피해자들의 생계비를 지원,

하기 위하여 법률을 만들고 500만원의 일시금과 한달에 15만원의 생계비 그외에 쌀과 연료, 의료보호, 영구임대주택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서로 나누어 사는 집」

불교인권위원회는 기금을 모이고 피해자들속에서 희망자에게 공동생활의 마당을 제공하였다. 현재 6명의 할머니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

(4) 정대협은 피해자들에로의 병원알선, 생활상담 그리고 장례식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필리핀·타스크웬스에 의한 구원활동〉

- (1) 월례로 집회를 열고 캠페이나 재판의 근황보고, 또 피해자들이 일상시 문제나 겨우 밖으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서로 나눈다. 카운슬링을 통하여 성노예화, 강간에 의하여 가지게된 치욕감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위한 의식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노력의 결과, 지금은 많은 러라가 자신과 자존심을 되찾고 있다.
- (2) 최근 의료프로그램을 시작. 보건성에서 16장의 무료검진카드를 쟁취하였다. 러라전원의 검진도 앞으로 타스크웬스의 파트너인 의료활동그룹(MAG)에 의하여 진행되는 예정. 가정방문을 하고 각자의 가족환경, 감정, 건강심리, 경제상황을 더 잘 아는 노력을 한다.
- (3) 수입을 남기 위한 재봉프로젝트를 위하여 재봉기를 구입하는 예정. 특정한 빈궁한 전 「위안부」를 위한 모금운동 크리스마스에는 성가대를 조직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하는 예정.

참고자료

- 1) 제2회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세아연대회의보고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편『증언-강제연행된 조선인위안부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본제국주의의 조선점령피해조사위원회「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종군위안부〉 범죄사건의 진상조사 중간보고, 1993년 8월」
- 4) 국제공청회실행위원회편「세계에서 추궁되는 일본의 전후처리① 〈종군위안부〉 등 국제공청회의 기록」
- 5) 아세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소장 [원고 朴七封, 피고 일본국]
- 6) 石田忠次 『원폭체험의 사상화-반원폭론집 I』
- 7) 宮田加久子 『부기력의 메카니즘』
- 8) H.M. 린드저 『수치와 아이덴티티』
- 9) 주간지『아사히芸能』 소화48년 8월12일호 「고백! 전쟁위안부가 살아온 인종

의 28년」

- 10) 오키나와 타임스 1992년 2월19,20,21일부 川田文子씨에 의한 「3명의 중군 위안부」 상·중·하
- 11)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 "Comfort Wrmen - The Unfinished Ordeal "
- 12) The Task Force of Filipina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ar Crimes on Asian Women: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 13) Canadian Pension Commision "Report of a Study of Disabilities and Problem of Hong Kong Veterans,1964- 1965" (Richardson Report)
- 14) B.라휘엘저 石丸正번역 『재해가 물러올 때-가터스트리위의 정신의학』
- 15) 新渡戸稲造저, 矢内原忠雄번역 『부시도 (武士道) 』
- 16) 河合隼雄전대화Ⅲ 『부성원리와 모성원리』
- 17) 郷古英男저 『「우라미 (원망) 」의 심리』